



## 동방경제포럼 소식

9월6일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2017-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러시아 -몽골 세션에 참석한다. '러시아-몽골 : 회담장 - 극동' 원탁회의에서는 양국협력 이슈 및 극동에서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극동캐피탈)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자신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azeta.RU)

러시아와 일본 외교관들은 이번 경제포럼에서 쿠릴 섬 내 공동경제활동 일환으로 준비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들에 대해 양국 정상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리아 노보스피)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토론클럽인 '발다이'는 '4자회담, 러-중-일-미 : 협력가능성 여부' 세션을 준비하며, 이외에도 '러시아의 동방정책 - 결과와 새로운 목표' 화상 토론도 진행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러시아와 외국 파트너들간의 협력 통합 이슈를 다룰 것이다. (타스)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블라디보스토크 조치 도입은 FESCO 컨테이너 수출 운송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다"라고 차브로프 극동해운담당국장이 포럼에 앞서 밝혔다. (타스)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60편에 달하는 비즈니스 항공기가 입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입항했다”**라고 공항 프레스 담당국이 밝혔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 실시 관련한 블라디보스토크 내 추가 안전조치.** 9월4일에서 9월8일동안 아약스만과 파리스만 수역내 소형선박을 위한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외 정기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영공 내 비행도 제한된다. (타스)

## 극동 뉴스

**“2017년 6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80%가 늘어난 3만5천7백명의 한국 관광객과 150%가 증가한 7천2백명의 일본 관광객이 연해주를 찾았다”**고 사포노프 연방관광청장이 밝혔다. (태평양 러시아)

**‘고르노이 보즈두흐’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인 ‘호노카 사할린’회사는9월에 사할린주에 온천 복합시설을 오픈한다.** 총 투자액은 5억 2백만 루블로, 이중 절반은 일본 업체인 ‘마루신 이바데라’회사가 투자한다. (REGNUM 통신)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인 ‘테흐노콜 극동’회사는 수경재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에 묘목 식재를 위해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재배방법이다.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